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732-0714)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소식

- ◆ 사순시기입니다. 개인당 사순 애금함을 가져 가셔서 단식과 금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 ◆ 부활 판공성사 안내
 - 각 구역장을 통해서 판공성사표를 배부해 드립니다
 - 성사표가 없으신 분들은 준비 되어있는 성사 기록 표에 기록해 주시고, 성사표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 실 내에 마련된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 사순특강 안내
 - 일시 - 3/19(금) 저녁 7시 30분 평일미사 후
 - - 3/20(토) 저녁 7시 30분
 - - 3/21(일) 주일미사 후
 - 장소: St. Leo 성당
 - 강사: 뉴튼 수도회 원장 김동건 사무엘 신부님
 - 많은 신자분들께서 사순특강에 참여하시어 뜻깊은 부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3월 아치에스 행사 안내
 - 일시: 3/21(일) 오후 2시
 - 장소: St. Andrew Catholic Church
 - 콜럼버스 아치에스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 레지오 단원들과 협조 단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정하상 구역모임 안내
 - 일시: 3/27(토) 저녁 7시
 - 장소: 윤형석 비안네님 덕
 - 7548 Windsor Dr. Dublin OH 43016
 - 614-316-6119

- ◆ 성주간 예식 안내
 - 성유 축성 미사
 - 일시: 3/30 (화) 저녁 6시
 - 장소: St. Joseph 주교자 성당
 - 성 목요일 만찬미사 안내
 - 일시: 4/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 안내
 - 일시: 4/2(금) 오후 3시
 - 장소: St. Leo 성당
 - 성 금요일 십자가 경배 예식 안내
 - 일시: 4/2(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부활 성야 미사 안내
 - 일시: 4/3(토) 저녁 8시 30분
 - 장소: St. Leo 성당
- ◆ 청년성서모임 창세기 그룹원 모집 안내
 - 카톨릭 청년 성서모임은 젊은이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을 읽고 나눔을 통해 말씀의 생활화를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 대상 및 인원: 본당 청년 3 ~ 5명
 - 기간: 3월 셋째주~6월 (주1회, 12주 과정)
 - 신청및문의: 장유진(데레사), 614-886-0330
- ◆ 세금 혜택 관련, 기부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한 신자분들께서는 미사 후, 재정위원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11.00
교 무 금	\$1,485.00
주 보 광 고 비	\$650.00

- ◆ 교무금: 안유신, 배상진, 이호근, 양희진, 서경환, 김명호, 박석현, 서태수, 박귀영, 조주현, 김현진
- ◆ 주보광고비: 최영찬, 최준표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사순 제4주일 March 14, 2010



<방탕한 아들의 귀가> 리오넬로 스파타, 유채, 160x119cm, 두칼갤러리, 파르마, 이탈리아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여호수아기 5,9-11,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낸다.”

화답송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2서 5,17-21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루카 15,1-3,11-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본당 신심단체 안내

	단장	연락처
십자가의 모후	김정일 그레고리오	614-496-3149
평화의 모후	정순화 발바라	614-873-2526
상지의 옥좌	안유신 레오	614-203-5046
증거자의 모후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바다의 별	김미영 타티아나	614-288-0907
하늘의 새벽	양희진 에밀리아	614-565-8430
로사리움 샤로네 성가대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

봉사자 안내

	3/14/10	3/21/10	3/28/10	4/4/10
해설자	박귀영	고상식	김오경	안유신
독서/봉헌	황석두 구역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증거자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118 ♫ 봉헌: 216
 ♫ 성체: 127, 167 ♫ 파견: 123

하느님의 사랑과 고통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신수동성당 주임

‘탕자의 비유’쯤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오늘 복음 말씀은 사실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이로 여기고 제 몫으로 돌아올 것을 청한 둘째 아들의 행위는 분명 패륜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수모는 정의의 실현이라 함이 옳습니다. 뉘우쳤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가 참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만신창이로 돌아오고 있는 그를 아버지는 멀리까지 달려가 목을 깨안고 입을 맞춥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은 간단히 ‘가연은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이 ‘가연은 마음’을 무슨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를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신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수도 없이 당신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이지만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리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가연게 여기셨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 아들을 죄로 만드셨을까요? 하느님께서 품으신 인간에 대한 사랑은 차라리 극단의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느님의 사랑을 허구의 것 혹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현상들이 허다합니다. 복음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패륜의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려받을 유산이라고는 ‘빈곤’밖에 없는 젊은이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도 가연게 여겨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게다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여줄 몇몇 높은 분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대로 영원히’를 노래하지만, 대다수의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은 “곤궁에 허덕”이고 “돼지 치는 일” 자리마저 구걸하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고진감래’를 들먹이며 고통을 강요하는 이들은 태연하기까지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굶주리고 있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촉구한다.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지 않으면 그대가 죽이는 것이다’고 한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사목헌장,69항)합시다.

안 내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청년 협의회 안내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밀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

◆ 교무금 및 기타 납부금 안내

- 장소: 사제관 1층, 본당신부 사무실
- 신자분들께서는 사제관 1층 정문 우측편에 있는 본당신부 집무실에 있는 재정위원들께 납부금을 내시면 됩니다.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5,190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